

제 7 강 장자와 도가사상 I

※ 학습목표

장자를 통해 도가사상을 이해한다.

▲ 도가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철학

- 도道는 어떠한 사조를 떠나서 동북아 사상 자체의 성격이다. 전국시대의 장자는 맹자, 순자와는 대조적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펼쳤다. 이는 유가적 사상과 단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이다. 유가가 자연을 넘어서서 인문세계(人文世界, 사람과 언어의 세계), 이화세계(理化世界, 야만이란 이화세계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 조선 말기 한국에서는 중국(청)을 ‘소종화’로 불렀는데 그 근거도 여기에 있다.)를 꿈꾸었는데, 이는 도가와는 구별되는 작위作為, 유위有爲적인 부분이다. 유가에서의 ‘야만’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 뿐 아니라 인문세계, 이화세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 장자의 사상

- 장자의 사상은 노자의 사상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좋다. 노자는 장자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장자는 기원전 4세기 송宋(지금의 하남성 동부) 사람으로 추정되며, 이름은 주周, 자字는 자휴子休이다.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유가, 도가의 사람들은 관료들이 많았으므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도가나 불가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일반적인 학파(문벌을 이룸)는 후학양성에 힘썼으나 장자/노자는 후학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장자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의 제자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며, 위魏의 재상인 혜시惠施와 가까웠다. ‘四戰之地’의 땅에서 사유했으며 절망의 진흙탕에서 환희의 자유로 나아가는 사유를 전개했다. 초나라의 위왕이 천금을 주면서 제상자리를 권유했는데, ‘제사에 사용하는 소를 보라. 몇 년 동안 잘 먹이고, 꽃도 씹워주지만, 제사상에 오르지 않느냐.’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죽었을 때 울기는커녕 악기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인 혜시가 이에 대해 묻자, ‘죽음이라는 것은 기의 우주적 운동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죽을 때조차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산이나 들에 내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무위無爲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남을 교화하려는 내용보다는 삶이라는 것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동시에 그것을 유머와 익살 풍자로 승화시키려 한다. 이처럼 장자는 해학과 초탈한 사유를 전개하여 중국 문학의 큰 봉우리를 형성한다.

▲ 장자

- 맹자와 순자의 글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일정한 어휘를 사용하는데 비해, **장자는 어휘/문장의 기법이 풍부하여 문학적으로도 결작**에 형성된다. 위진시대의 박상이 장자를 정리하였다. 장자莊者是 총 33편으로 크게 ‘내편內篇’과 ‘외편外篇’, ‘잡편雜篇’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서 장자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내편(內篇_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論, 양생주養生主, 인간세人間世, 덕충부德充符, 대중사大宗師, 응제왕應帝王) 7 편이다. 여기에 나타난 중심 사상이 부연된 것이 ‘외편’ 15편과 ‘잡편’ 11편(첫 번째 장에서 대의를 설명하고 다음 장부터는 부연 설명을 하는 구성을 갖춤)이다. 장자는 당나라 현종玄宗에게 남화진경南華真經이라는 존칭을 받아 《남화진경(南華真經)》이라고도 한다. 장자의 사유는 공맹의 사유와 더불어 동북아 사회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참고자료

『장자』, 안동림 저, 현암사. 1999

▲ 장자의 화두 1

- “북녘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시작부터 맹자 같은 텍스트와는 다름. 분위기 자체가 로고스 logos 보다는 미토스 mythos 의 분위기). 곤의 크기는 몇 천 리 인지 알 수 없고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봉鵬이라고 한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도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 때 그것을 타고 남쪽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바다란 천지天池(하늘못)를 말한다.” 이것은 주어진 존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화(化)는 ‘~이 되다’ 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자의 사유를 **‘자유’의 사상**이라 한다. 주어진 조건이나 결정적인 법칙 등 삶의 구조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화(~되는 것 becoming)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된다’는 것은 ‘~임(규정되는 어떤 것)’의 반대, 즉 ‘존재’의 반대이다. 이는 들뢰즈의 ‘생성’ 개념과 비슷하다.

- **규정을 초월하라.** “제해란 괴이한 일을 아는 사람이다. 그 제해가 말하길 ‘봉이 남쪽바다로 날아갈 때는 파도를 일으키기를 3 천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를 9 만리, 그런 뒤에야 6 월의 태풍을 타고 남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아지랑이와 먼지, 이는 천지간의 생물이 서로 입김을 내뿜어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고 보면 하늘의 새파란 빛은 과연 제 빛깔일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끝이 없기 때문일까? 봉 또한 하계를 내려다볼 때 여기서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새파랄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은 ~이다’ 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로 말하자면 서술하는 것이다. 장자는 그런 술어(규정성)들을 초월하는 것, 술어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말한다. 그런 술어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상대적인 관점에 눈뜨라.** “가령 꿀 권 곳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한 잔의 꿀을 마루의 패인 곳에 얹지르면 작은 풀잎은 떠서 배가 되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바닥에 닿는다. 물은 얕은 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러므로 9 만 리나 올라가야 날개 밑에 충분한 바람이 쌓인다. 그런 뒤에 비로소 봉은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아무런 장애도 없이 바야흐로 남쪽을 향하게 된다.” “매미와 비둘기가 봉을 비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날아도 박달나무나 느릅나무에 부딪힌다. 게다가 종종 나무에도 이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일쑤지. 그런데 어찌하여 불은 9 만 리나 솟구쳐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교외로 나가는 사람은 세끼 식사만 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배는 부르다. 백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밤새도록 식량을 짊어야 하고, 천리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세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이 두 벌레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이 이야기들은 인간사회에 대한 풍자일 수 있다. 작은 것에 집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장자 같은 사람이 볼 때에 어찌 이해가 가겠느냐 라는 뜻이다.

-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루살이 버섯은 밤과 새벽을 모르고 쓰르라미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나무이름)이 있는데, 오백년은 봄이고, 오백년은 가을이 된다. 상고에 대춘(나무이름)이 있었는데, 팔천년은 봄이고, 팔천년은 가을이었다. 이는 수명이 긴 것으로, 팽조는 오늘날 오래 살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소문이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와 견주려 한다면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이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모르고 작은 것에 집착할 때에 큰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볼 것인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장자에는 일반적인 중국 문헌에서 보기 힘든 이상한 단어,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문화적으로는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 봉 이야기의 다른 갈래 version

- “은나라의 탕왕이 현신 하극에게 물은 바도 이와 같다. 북녘 땅에 ‘명해’라는 바다가 있으며 그것을 천지라고 한다. 거기 물고기가 있는데 몸의 넓이는 수 천리이고 그 길이는 아직 아무도 모르며 이름을 ‘곤’이라 한다. 거기 또 새가 있어 그 이름을 ‘봉’이라고 한다. 등은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개 쳐서 빙글빙글 돌며 구만리를 올라가 구름 위에 솟구치면 푸른 하늘을 이고 비로소 남쪽을 향해 날아간다. 메추라기가 그것을 비웃으며 ‘저 놈은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불과 몇 길을 못 올라가고 내가 수풀 사이를 날아다니거든 이것도 대단한 날아오름인데 저 놈은 어디를 날아가는 걸까’하고 뇌까린다. 이를 두고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라고 한다.

장자와 도가사상 II

※ 학습목표

장자와 도가의 사상에 대해 텍스트를 읽으면서 공부한다.

▲ 장자의 화두 2

- **사람들의 눈길을 초극하라.** 도가에서는 소와 대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불과 한 관직에 효과가 있고 그 행위가 한 고을에 알맞으며 그 덕은 한 임금의 신의를 얻을 만하고 그 재능은 한 나라를 빛낼 정도인 그런 인물은 스스로를 보는 눈이 메추라기와 같이 비좁다. 송영자는 이런 인물을 싱긋이 비웃는다. 세상 모두가 칭찬을 한다고 더 애쓸 일도 없고 세상 모두가 헐뜯는다고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다. 남의 시선이 나를 규정한다. 타인은 나의 외적인 요소들을 연역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어려운 일에 닥쳐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닐 것이다. 칭찬을 받으려 애쓰지 않고, 욕한다고 기죽지 않는다는 것도 대단한 경지이다.

- **자족하라.** “다만 내심과 외심의 분별을 뚜렷이 하고 명예와 치욕의 경계를 구분할 뿐이다. 그는 세상일을 쫓아 허둥대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안정되지 못한 데가 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니 가뿐하고 좋다. 심오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돌아온다. 그는 편하게 복을 가져오는 것을 쫓아 허둥지둥하지는 않는다. 이는 스스로 걷는 불편은 면했으나 역시 기대는 데가 있다. 그러나 만약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무애, 무외, 무궁)의 세계에 노는 자가 되면 대체 무엇을 의존할 게 있으랴?” ‘열자’도 도가의 중요한 원전이다. 노자, 장자, 열자, 회남자 등등.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 이는 스피노자적 의미에서의 ‘신’ 개념이다. 그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참고자료 1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 1632년 ~ 1677년, 네덜란드

『데카르트의 철학원리』 『신?인간 및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논문』

“그래서 지인에게는 사심이 없고 신인에게는 공적이 없으며 성인(이 때는 도교의 성인을 의미)에게는 명예도 없다.”

- 유교의 성인은 첫째, 역사적 인물로 보편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뜻이 있다. 둘째, 인간에게 ‘유위(작위)’를 주는 사람의 뜻으로 서구의 성인(saint)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도교에서는 자기를 초월한 사람을 진인 혹은 지인이라 부른다. “요 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말했다. ‘해와 달이 돌아 밝은데 관솔불을 계속 태우다니 그 빛은 헛되지 않습니까? 때맞추어 비가 내리는데 여전히 물을 대고 있으니 그 물은 소용없지 않습니까?(해와 달, 물은 허유를 의미. 관솔불과 작은 물은 자기, 곧 요를 의미) 선생께서 임금이 되시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터인데 내가 여전히 천하를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부디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는 대답했다. ‘그대는 천하를 이미 잘 다스리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대를 대신하다니 천자라는 명목을 얻기 위해 대신한다는 말인가요? 명목이란 실질의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리얼한 것’은 ‘주’이고 ‘노미날한 것(상징계)’은 ‘객’이다. 도가에서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난에 불과하다. 자연에는 인간사회(들뢰즈, 가타리의 용어로는 기호체제임)와 같은 금이 없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금에 우리는 스스로 얽매어 있는 것이다. “나더러 그런 손이 되란 말인가요? 뱀새가 깊은 숲 속에 동지를 짓는다 해도 불과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그 작은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고 나도 그런 경지를 즐기고 있으니 돌아가 쉬시오. 내게는

천하가 아무 소용도 없소.” 이는 곧 자족하라는 소리인데, 삶 자체가 완벽하게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 장자에 대한 비판과 답변

- 도를 터득한 현인 견오가 연속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접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네만, 글썽 그게 너무 터무니없고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을 모르더군. 나는 그 이야기가 은하수처럼 한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 그만 오싹해졌네. 너무도 차이가 있어 상식에 어긋나네." 연속이 물었다. "그 이야기란 어떤 건가?" 견오가 대답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지. 그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몸매는 처녀같이 부드러우며 곡식은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천지 밖에서 노닌다네. 그가 정신을 한데로 집중하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병들지 않고 곡식도 잘 익는다는 거야. 이야기가 하도 허황 되서 믿어지지 않네." 이 인용은 장자의 이야기가 당대에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장자의 친구 혜사가 장자를 비판하기를, "천하에 비해 그대의 생각은 너무 크고 거창한데, 허황된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것이었다.

연속이 말했다. "그렇군. 장님에게 빛깔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귀머거리에게 음악의 황홀한 가락이 안 들리지만 장님이나 귀머거리는 비단 육체에만 한하는 게 아닐세. 지식에도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네. 그게 바로 지금의 자네를 말함일세. 신인의 덕은 만물을 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편하게 만들기를 바라지만 신인이 무엇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천하를 위해 애써 수고하려 하겠나? 신인은 외계의 사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고 홍수가 나서 하늘에 달을 지경이 되고 빠질 일이 없으며 큰 가뭄으로 금속과 암석이 녹아 흘러 대지나 산자락이 타도 뜨거운 줄 모르네. 신인은 그 몸의 먼지나 때 쪽정리와 겨로도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요나 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천하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려 하겠나?"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관을 많이 사가지고 월나라로 장사를 떠났다. 그런데 월나라에 가서 보니 그곳 사람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몸에는 먹물로 그림을 그리고 지냈다. 따라서 문명한 나라 사람들이 쓰는 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요는 선정을 베풀어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었으므로 의기양양하게 막고야산 속에 살고 있는 네 명의 신인을 찾아갔다. 그러나 요는 거꾸로 신인들에게 압도되어, 서울 교외에 있는 분수가 돌아와서도 정신이 멍해 세상사를 아득히 잊었다." 장자는 자기의 사상을 천하에 무용하다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은 천하를 초탈하는 큰 지식이라 한다. 천하라는 생각 자체를 비판한다.

혜자(혜사)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기에 그것을 심었더니 자라서 다섯 섬 들이의 열매가 열리더군요. 물을 담자니 무거워서 혼자 들 수가 없고,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자니 펄퍼짐하고 알아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횡덩그레 크기만 컸지 아무데도 소용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내 그것을 부숴 버리고 말았습니다그려." 이는 장자에 대한 풍자(당신의 사상은 무용하다는 것)이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정말 서툴군요. 송나라에 손 안 트는 데 잘 듣는 약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었더랍니다. 한 나그네가 그 말을 듣고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제의하자, 그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우리가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해 오고 있지만, 겨우 몇 푼이나 버는 데 불과했다. 이제 단번에 이 기술을 팔아 백금을 벌 수 있으니 그에게 팔도록 하자.- 나그네는 그 처방을 얻어 가지고 오왕을 설득했습니다. 마침 월나라에서 침범하여 왔으므로, 오왕은 그를 장수로 삼아,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와 수전을 벌여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오왕은 그의 공적을 치하하여 봉지를 내리었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는 봉지를 받고, 어떤 이는 솜이나 빨게 된 이유는 그것을 쓰는 방법이 달랐던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다섯 섬 들이의 박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큰 술통 모양의 배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그것이 펄퍼짐하여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걱정만 하는 거요?" 플라톤은 쓰임에 대해, ergon(활동)에서 시작하여 ergon의 기능이 잘 발현되는 것을 arete(~다움)이라고 했다. 이것이 곧 본질주의인데, 장자의 용용은 이것과 정확히 반대된다. 사물의

용용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가축나무라 부르오.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먹줄을 칠 수 없고, 그 작은 가지는 굵고 꼬여 자로 잰 수 없소. 길에 세워 두어도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소. 지금 그대의 말은 크지만 쓸모가 없기에 못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오.” 장자 왈, “당신은 너구리나 살쾡이를 보지 못하였소. 몸을 낮추어 엎드려서 놀러 나오는 자를 겨누며, 동서로 날뛰고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는다오. 그러다 그물과 덫에 걸려 죽고 마오. 지금 저 들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소. 이것은 능히 큰일은 할 수 있지만 쥐를 잡지는 못할 것이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도 쓸모없음을 걱정하오. 어찌하여 황량한 고을의 텅 빈 들판에 심어, 그 옆에서 한가로이 무위無爲로 지내며 그 아래 누워 잠자려 하지 않소. 비록 그 나무가 도끼에 일찍 찍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하여도 나무 자신에게 어찌 괴롭거나 곤란한 일이 되겠소?”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실용주의에 대한 장자의 논박이기도 하다.

▲ 『소요유』와 『제물론』

- 『소요유』는 이론적 분석보다 장자의 삶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거기에 비해 『제물론』은 장자의 사유체계를 보여주는 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대목이다. 사람들이 차별하고 이름을 붙이고, 위계를 세우고 하는 것들이 큰 지혜의 입장에 보면 다 똑같다는 것이다.